

2021년
주요연구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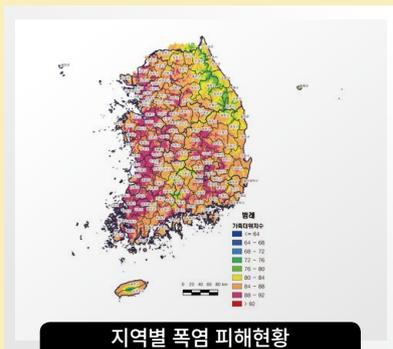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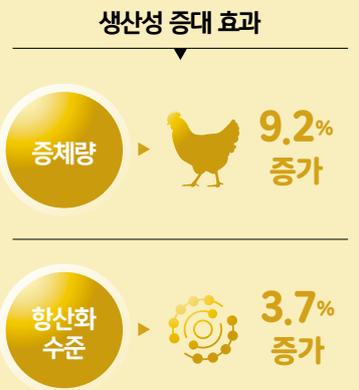
디지털 축산 기술 및 탄소중립 기후대응 기술 개발

고온기 가금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한

고온기 가금 사양관리 기술 개발

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으로 가금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고온기 가금류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한 사료첨가제 활용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.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육계 고온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후보물질 및 사육밀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산화물질, 아미노산 등이 육계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습니다.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온기 가금류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한 사료첨가제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.





연구배경

- [현황] 여름철 잦은 이상고온으로 가금 폐사 등 생산성 저하 문제 발생
- [필요성] 고온기 가금류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한 사료첨가제 활용 기술 개발 필요
 - * 고온기 가금류(닭·오리·메추리 등) 피해량: ('16) 5,800천마리 → ('18) 9,020

개발성과

- [현황조사] 폭염 취약 지역 및 대응 시설·장비 보유 농가(200호) 현황 분석
 - * 주요 폭염 지역 피해건수('19): 충남(211), 전북(209), 경기도(191) 등
 - * 보유율(%): 온습도센서 98, 발전기 85, 환풍기 92, 안개분무기 62, 쿨링패드 35, 차광막 16
- [사양관리] 육계 고온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후보물질 및 사육밀도 효과 분석
 - * 항산화물질(비타민C), 아미노산, 사육밀도 등

파급효과

- [기술적효과] 육계 고온스트레스 저감으로 생산성 증대
 - * (항산화물질) 후기사료 내 비타민C 250mg/kg 첨가 시 증체량 9.2% ↑, 항산화수준 3.7% ↑
 - * (아미노산) 무첨가 대비 스트레스 수준 감소
글루타민 29% ↓, 타우린 23.4% ↓, 비테인 47.9% ↓
 - * (사육밀도) 권장(39kg/m²) 대비 (27.3kg/m²) 이하 사육 시 가슴육 내 항산화수준 6.9% ↑, 지방산패도 15.6% ↓

